

# 밥상 밖에서 쌀 산업의 미래를 만드는 기업들

쌀을 다양한 식품으로 진화시키며 국내외 소비를 이끄는 기업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점이다. 떡의 본질을 잃지 않고 세계적인 간식으로 풀어낸 마음이가, 막걸리 세계화를 향해 100년 쌀 발효문화를 확장하는 우리술, 쌀 가공 기술로 누룽지 시장을 개척하는 라이스존, 그리고 냉동밥과 HMR로 시너지를 내며 성장곡선을 그리는 엄지식품. 떡, 막걸리, 간편식, HMR까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쌀의 가치를 넓혀가는 네 기업을 만났다.

